

【 주간이슈 】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완 필요성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 현재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인데 비해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보다 늦은 60세이기 때문에 민영연금보험을 활용하여 퇴직자의 부족한 현금 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3월 기준 국민연금제도의 완전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각각 3만 9천명, 19만 2천명이며, 1인당 수급액도 각각 75만원, 41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보완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상태임.
- 국민연금제도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퇴직자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지급이 확정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2010년 3월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55세 남자 퇴직자가 퇴직금을 활용하여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64만원(일시납 5천만원)~87만원(일시납 1억원) 정도의 확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는 50대 1인 가구 생활에 필요한 재원 126만원의 50~7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임.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와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회사는 퇴직 시점에 임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설계 자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의 다양한 연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예: 정액방식과 변액방식을 통합한 하이브리드상품, 위험률세분화상품 등)을 개발하도록 함.
 -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이 연금소득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사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금융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1. 문제제기

- 우리나라 기업체의 퇴직연령을 55세 수준¹⁾으로 가정할 때 퇴직 후 생존 기간은 27.63년(2008년 기준 남자 24.62년, 여자 30.13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이지만 동 기간에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50~59세 가구주의 가계자산은 부동산 79.8%(주택 1억 6천만원, 주택 이외 1억 3천만원), 금융자산 17.6%(6천 5백만원)로 구성되어 유동성이 낮음²⁾.
 - 50~59세 남자의 노후 준비방법은 국민연금이 47.2%로 가장 높지만³⁾,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자(2010년 3월 기준 2백여만명)가 적고 수급하는 연금소득 규모(월 24만 8천원)도 크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현재 퇴직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기간이 짧고 납부한 보험료 규모도 작았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과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직 단계에 접어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불충분한 국민연금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민영연금상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방안으로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보험회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2. 국민연금 수급 현황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이후 점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 퇴직자와 2010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적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임.
 - 2010년 3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백여만명 수준이며 이중 대다수(74.6%)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임.

1) 2009년 6월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현황 및 정년제도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자의 평균 정년은 57.14세이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 연령은 그 보다 짧은 53세(남자 55세, 여자 52세)로 나타남.

2)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자료이며 2006년 기준임.

3)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이며 2009년 기준임.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가입 기간이 짧은 여자의 경우에는 예·적금·보험(32.0%), 국민연금(27.4%) 순임.

- 2008년 들어서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기본연금액이 100%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만 9천 명에 불과함.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가 속한 50~59세 계층은 완전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부여되기 전이므로 주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표 1>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유형별 연금 수급자 현황(2010년 3월 기준)

(단위: 천명)

		완전노령 연금 ¹⁾	감액노령 연금 ²⁾	조기노령 연금 ³⁾	특례노령 연금 ⁴⁾	분할노령 연금 ⁵⁾	계
연 령 구 분	전체	39	316	192	1,620	3	2,172
	50~59세	-	1	85	-	-	87
	60~64세	39	252	66	572	2	931
	65~69세	-	63	40	640	1	744
	70세이상	-	-	1	408	-	410

- 주: 1)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2)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한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3)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자가 60세 도달 전에 청구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4)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만 가입해도 60세부터 지급하는 연금
 5) 이혼한 자가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현 퇴직자와 베이비붐 세대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가상적인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보험료 납부로 인해 실제 수급한 연금액의 규모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도입 당시 베이비붐 세대는 25~33세였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30~40년)을 하고 2020년 이후에 퇴직한다면 대부분이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노후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것임⁴⁾.
- 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연금 급여수준은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70%에 달할 정도로 높았지만⁵⁾ 가입 초기 보험요율이 3~6%⁶⁾ 수준으로

4)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공적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남자 6년, 여자 13년으로 나타남. 따라서 가상적으로는 40년 가입자를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입기간이 35년 미만이며 여자는 이보다 7년이 더 짧음. Munell and Soto, Sorting out Social Security Replacement Rates, *Just the Facts on Retirement Issues*, November 2005, No.19 참조.

낮았고, 가입기간도 짧기 때문에 실제 연금소득 규모는 상당히 낮음.

- 2010년 3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연금소득은 완전노령연금 75만 3천원, 조기노령연금 41만 1천원 수준임.

<표 2>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유형별 연금 수급 금액(2010년 3월 기준)

(단위: 천원)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	평균
753	434	411	181	134	248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금소득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o 2010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은 85만 9천원 수준에 달하며, 50~59세 1인 근로자 가구의 지출 규모는 126만 3천원 수준으로 추정됨⁷⁾.

-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1~63세로 늦추어질 예정임.

<표 3> 출생 연도 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적용 시기	출생 연도	수급 개시 연령
~2012년	1952년생 이전	60세
2013년	1953~1956년생	61세
2018년	1957~1960년생	62세
2023년	1961~1964년생	63세
2028년	1965~1968년생	64세
2033년	1969년생 이후	65세

5) 40년 가입 기준 평균 소득대체율은 1988~1997년에는 70%로 설정되었으나 1998~2007년에는 60%로 낮아지고, 다시 2007년 단행된 연금 개혁으로 인해 2008년에는 50%로 낮아지고 이후 매년 0.5%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짐.

6) 보험요율은 1988~1992년 3%에서 1993~1997년 6%로 인상되었고, 1998년 이후 현재까지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7)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50~59세 1인 근로자 가구의 가계지출(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합계) 규모(94만원)를 2001~2010.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한 것임.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적인 퇴직연령은 55세인데 비해 61~63세에 이르러서야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6~8년 간 연금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함.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수급개시 연령 5년 전인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수급 1년당 연금 급여가 5%p씩 감액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해짐.
- 완전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추어짐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현재 55세에서 56~57세로 점차 늦추어질 예정임⁸⁾.

□ 현 퇴직자와 퇴직이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의 낮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을 보완하고, 실제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6~8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민영연금보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3.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의 활용 필요성

- 일시납 즉시연금보험(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은 퇴직금과 같은 목돈으로 가입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는 퇴직자에게 적합한 상품임.
-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은 보험료 납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점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데 비해 일시납 즉시연금은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상품은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되었으나 최근 들어서야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함.

<표 4>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실적

(단위: 억원, %)

	FY2008	FY2009	성장률		FY2008	FY2009	성장률
A사	1,390	2,536	82.4	D사	163	628	285.3
B사	690	1,030	49.3	E사	49	143	191.8
C사	1,168	1,920	64.4	5사(A~E)계	3,460	6,257	80.8

자료: 한겨레신문, 은퇴 뒤 내 목돈, 연금으로 받아볼까, 2010년 4월 19일

8) 1953~1957년생 55세, 1958~1961년생 56세, 1962~1965년생 57세

○ FY2009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5개 생명보험회사 실적에 한함)는 전년대비 80.8% 성장한 6,257억원으로 나타남.

□ 즉시연금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으로 설계되어 가입자가 원하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형과 상속형은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음.

<표 5>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의 개요

구분	보험기간	유형	급여 지급 사유	급여 지급 금액
종신형	종신 (10·20·30년 보증)	생존 연금	연금수급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상속형	종신	생존 연금	연금수급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사망 보험금	연금수급자가 특정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 보험료의 10~15%+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확정형	확정기간 (10·15· 20년)	생존 연금	연금수급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
		사망 보험금	연금수급자가 특정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 보험료의 10~15%+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최저 가입금액			5백만원~3천만원	
가입 대상 연령			45~85세	

자료: 각 사 상품공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종신형은 연금수급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 기간(예: 10년, 20년 등) 안에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동안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할 인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 상속형은 연금수급자가 계약자적립금⁹⁾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상속할 수 있어 상속설계에 활용되며, 종신형과 달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망보험금은 “일시납 보험료의 10~15%+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함.

9)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란 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의미함.

- 확정형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예: 10, 15, 20년)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함.
- 연금 급여는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 급여도 변경됨.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 하여 산출한 공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80~120%)을 가감하여 결정함.
 -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2.0~3.0%, 10년 초과 1.5~2.0% 수준을 적용함.
- 확정형을 제외한 종신형이나 상속형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됨.
 -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매월 받는 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되어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2010년 3월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55세 남자 퇴직자가 퇴직금을 활용하여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월 64(5천만원 가입)~87만원(1억원 가입) 정도의 확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표 6> 국민연금과 즉시연금의 합산 연금소득 예시

(단위: 천원, %)

조기노령연금 ¹⁾ (a)	일시납 즉시연금 ²⁾		생활비 ³⁾ (d)	생활비 충족률 ⁴⁾	
	5천만원 가입(b)	1억원 가입(c)		(a+b)/d	(a+c)/d
411	230	460	1,263	641/1,263 =50.8%	871/1,263 =69.0%

주: 1) 조기노령연금 수급액은 2010년 3월 기준

2) 일시납 즉시연금의 연금 급여는 남자 55세, 종신연금형(20년 보증), 공시이율 4.9%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3) 2000년 기준 50~59세 1인 근로자 가구의 가계지출 규모에 대해 2001~2010.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된 수치임.

4) 생활비 충족률=(조기노령연금+일시납즉시연금)/생활비×100.

- 55세 남자의 일시납 보험료(공시기준이율 4.9%, 20년 보증) 규모가 5천만원, 1억원일 경우 각각 수급 가능한 연금소득 금액은 23만원, 46만원 수준임.
 - 이를 조기노령연금 41.1만원과 합산하면 전체 연금소득 규모가 64만원, 87만원 수준으로 높아져 생활비에 필요한 자원 126.3만원의 약 50~70%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음.
- 향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1~63세로 늦추어지는데 비해 실제 퇴직연령은 55세인 측면을 감안하여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국민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가교연금(bridge annuity)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완전노령연금 개시 전까지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서 집중적으로 높은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필요성을 낮추어 노후 소득보장의 불충분성을 완화시킬 수 있음.

4. 시사점

- 현재 퇴직자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직할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낮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민영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고 판단됨.
- 보험회사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 퇴직자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자 간 이질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을 확보하며 리스크관리 기능을 제고시켜야 함.
- 퇴직자의 연금 수요가 매우 다양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다양한 유형의 상품(예: 정액방식과 변액방식을 통합한 하이브리드상품, 위험률세분화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부록 참조).
 - 즉시연금상품이 시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핵심인 보증 기능과 함께 유연성 제고, 저비용 등의 요인이 중요하며 특히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은 중간소득계층을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 보험회사는 퇴직 시점에 임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판매채널이 적합성

요건을 위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종신휘연금에서는 보험회사가 퇴직자의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인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측정 및 관리 방안(예: 자연 헤징(natural hedging), 재보험 활용, 자본시장 활용 등)도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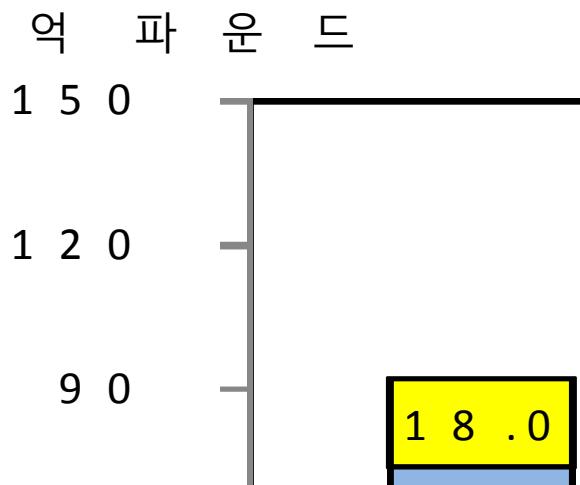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관련 시장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의 중요성과 이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함. KiRi

<별첨 1> 영국 및 미국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시장

-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연금 구입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함께 즉시연금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
- 2009년 기준 즉시연금 시장의 규모는 126.7억 파운드(연금 108.4억 파운드, 프로그램인출 18.4억 파운드) 수준임.
 - 퇴직자의 평균적인 퇴직자산 규모는 3만 파운드에 불과하므로 종신까지 안전하고 확실한 소득 보장에 대한 니즈가 강해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정액형(fixed annuity)을 선택함.
 - 퇴직자산 규모가 클 경우 프로그램인출에 대한 활용도가 높는데 동 상품은 퇴직 후 바로 연금을 구입하지 않고 적립금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일정금액을 인출하다가 75세에 도달할 경우 잔여 자산으로 연금을 구입하는 방식임¹⁰⁾.
- 매년 47만명 정도가 즉시연금보험을 구입함에 따라 동 시장 규모는 2003년 이후 연평균 6.2% 성장하여 전체 연금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 정도에 달함.

<그림 1> 영국의 즉시연금보험 시장 추이



자료: 영국보험협회(<http://www.abi.org.uk>)

10) 적립금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영국 금융감독당국(FSA)에서는 10만 파운드 이상인 퇴직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권고하였으며 국세청(HMRC)에서는 연간 인출할 수 있는 최대·최저한도를 설정함.

□ 즉시연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 특화하는 새로운 연금사업자도 출현하였음.

○ Standard Life에서 출시한 하이브리드 연금(hybrid annuity)은 정액과 변액연금을 결합한 유형으로서 전통적인 연금보험의 특성인 보증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기능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임.

- 동 상품은 수수료·운영비용이 변액연금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입자가 정액과 변액연금에 보험료를 배부할 수 있음.

○ Just Retirement사는 즉시연금과 역모기지연금에 특화한 신규 연금사업자로서 주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¹¹⁾ 및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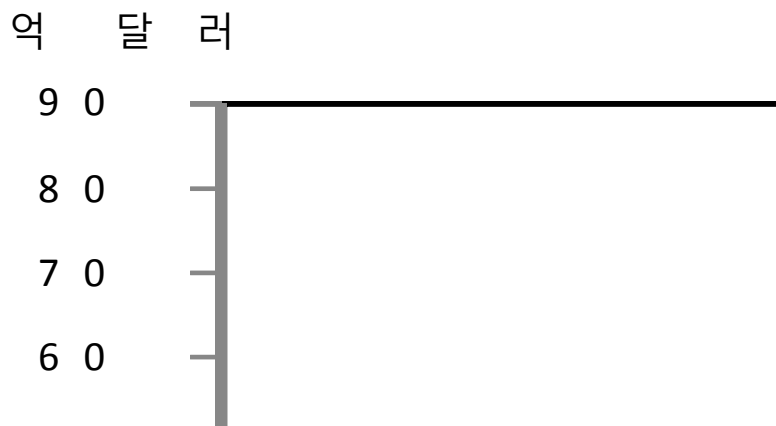
- 동사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FY2008 기준 7.5억 파운드이며 운용자산 규모는 2009년 6월말 기준 19억 파운드에 달함.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 전환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연금보험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동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0년 3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2.4배 확대된 71억 달러로 성장함.

○ 즉시연금보험이 전체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수준으로 높아짐.

<그림 2> 미국의 즉시연금보험 시장 추이



자료: LIMRA(<http://www.limra.com>)

11) 표준하체연금(enhanced annuities)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함.